

청년 79.5% “첫 월급 200만원” 못 받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재학중 아르바이트까지 포함 첫 일자리 임금

우리나라 청년들 열명 가운데 여덟명은 첫 일자리에서 월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청년층(15~29세)이 처음 가진 일자리에서 받는 월 임금은 150만~200만원 구간이 34.1%로 가장 많았다. 100만~150만원 구간은 27.7%, 100만원 미만은 17.6%였다. 200만~300만원 구간은 18.1%, 300만원 이상은 2.4%로 나타났다.

전체의 79.5%는 월 임금 200만원 아래 구간에 있는 셈이다. 물론 여기에는 통념상 '취업'이라 보지 않는 재학중 아르바이트까지 포함돼 있다.

1년 전 월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율은 82.7%였는데 올해는 몰가 상승률만큼 임금이 올라 그 비율이 다소(3.2%p) 축소됐다. 50만~100만원 구간과 100만~150만원 구간 비율이 각각 -1.0%p, 3.4%p씩 줄고 150만~200만원과 200만~300만원 구간은 0.3%p, 2.8%p씩 늘었다. 300만원 이상을 받는 이들의 비율도 0.4%p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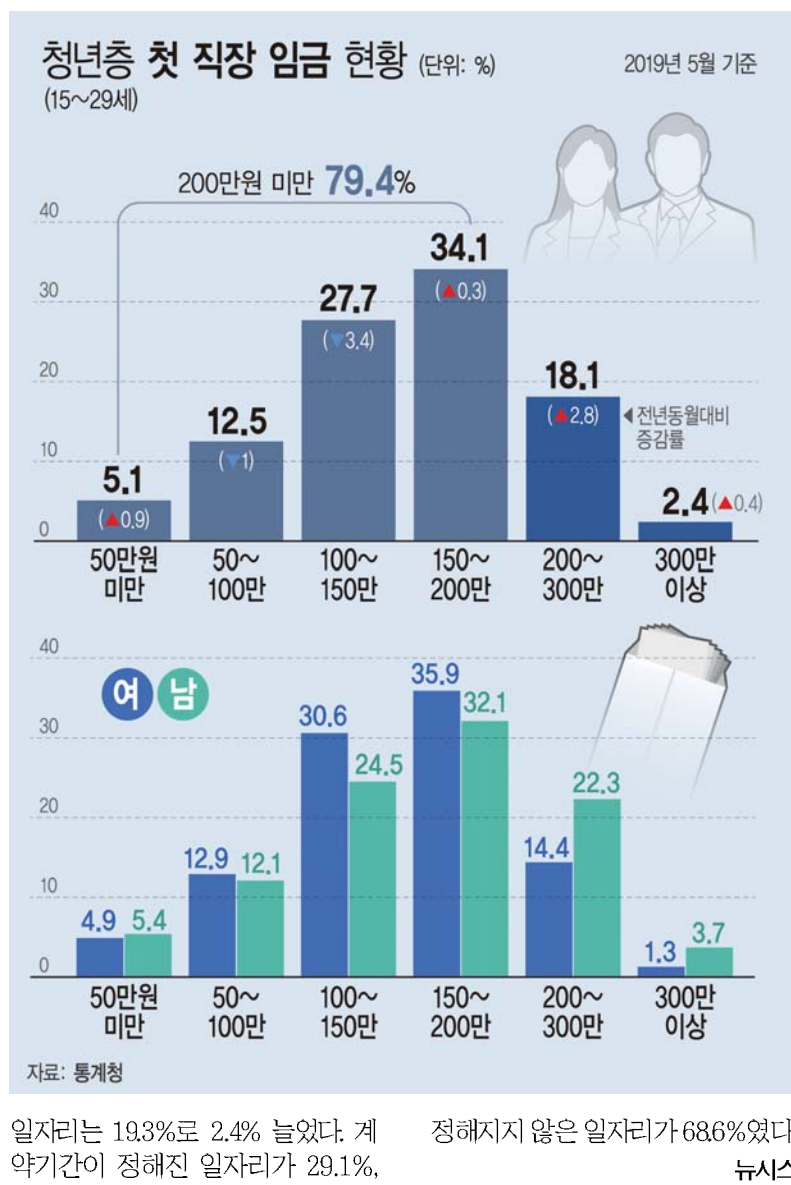
청년층 907만3000명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48.4%로 1년 전보다 0.7%p 높아졌다. 고용률은 43.6%로 0.9%p 상승했다. 취업에 뛰어든 연령대인 25~29세 고용률은 20.6%로 전년 동월 대비 0.9%p 상승했다.

반면 실업률은 9.2%로 같은 기간 1.1%p 하락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외국 관광객 증가세 등으로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증가했다”며 “15~19세의 경우 재학 중 하는 아르바이트이고, 25~29세의 경우에는 음식업 쪽의 임시직과 상용직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직업별로 보면 서비스·판매종사자가 32.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관리자·전문가(24.1%), 사무종사자(21.7%), 기능·기계조작종사자(12.3%), 단순노무종사자(9.4%)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0.7%), 도소매·음식숙박업(29.4%), 광업·제조업(15.8%)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형태를 보면 전일제 일자리는 78.3%로 2.8%p 줄었고 시간제 일자리는 19.3%로 2.4% 늘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일자리가 29.1%,



상반기 자동차 생산·수출 ‘증가’ “신형SUV·친환경차 판매↑”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국내 자동차 산업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생산은 202만8332대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업체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출시된 현대 팰리세이드는 4만4799대 생산했다. 기아 쏘울과 쌍용 코란도는 각각 8만886대, 9012대 생산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4%, 50.1%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2.5% 늘어난 124만6454로 집계됐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30.1%)와 신형 SUV(9.7%) 위주로 판매 호조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22.1%), 북미(21.3%), 동유럽(17.4%), 아프리카(16.5%)에 대한 수출이 늘었다. 반대로 중남미(-23.7%), 중동(-20.9%), 오세아니아(-9.3%), 유럽연합(-0.9%)은 줄었다.

자동차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3.7% 줄어든 86만7380대로 집계됐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BMW 등 수입차 판매가 21.8% 감소했다. 국산차 판매는 -0.1% 줄어들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30.4% 증가한 7만142대로 집계됐다.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확대되면서 내수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과 충전 인프라 확충도 소비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뉴시스

“마라맛 스낵도 나왔다”

해태 ‘빠세 마라’ · ‘신당동떡볶이마라’



우맛과 매콤한 정통 사천 요리의 맛이 색다른 조화를 이룬다. 신당동떡볶이 마라는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매운맛을 담았다. 매운 고추장과 톡 쏘는 마라의 매운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과자 크기를 1.5cm로 줄이고 포장도 포켓사이즈로 제작해 휴대하기 좋다.

해태제과가 마라를 활용한 스낵 ‘빠세 마라’와 ‘신당동떡볶이 마라’를 16일 출시했다. ‘빠세 마라’는 중국 사천의 대표요리인 마라몹사를 스낵으로 만든 제품이다. 새우를 통째로 갈아 넣어 진한 새

맛과 매콤한 정통 사천 요리의 맛이 색다른 조화를 이룬다. 신당동떡볶이 마라는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매운맛을 담았다. 매운 고추장과 톡 쏘는 마라의 매운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과자 크기를 1.5cm로 줄이고 포장도 포켓사이즈로 제작해 휴대하기 좋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마라맛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만큼 고유의 맛과 어울리면서도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밸런스를 찾아내 마라요리 스낵으로 완성했다”고 말했다.

207cm 서장훈처럼 긴 ‘서장훈 김밥’

GS25 신제품

지에스(GS)25가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45)과 함께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내놨다. 김밥·소시지·샐러드 등으로 207cm에 달하는 서장훈의 큰 키처럼 기존 제품보다 양을 늘린 게 특징이다.

서장훈수퍼통치즈김밥은 일반 김밥의 1.5배 길이로 출시됐다. 유어스207후랑크와 유어스207소세지는 서장훈의 실제 키 207cm를 반영해 길이가 207mm다.

서장훈반숙란에는 반숙 계란 3개가 들어있다. 일반 반숙란은 계란 2개가 들어있다.

GS25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가맹점 발주가 시작된 ‘서장훈 시리즈’는 첫 날에만 20만개 이상 주문이 들



어왔다. 특히 서장훈수퍼통치즈김밥은 GS25 김밥 부문에서 매출 1위를 기록 중이다.

GS25 관계자는 “신상품을 기획할 때 맛의 차별화 뿐만 아니라 상품의 스토리까지 고려해 기획하고 있다”며 “유명인 모델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상품에 잘 살려 맛의 차별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고객 경험까지 선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韓 친환경차 수출 연평균 33% 늘어

다양한 차종 · 기술경쟁력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최근 수년간 한국 자동차 수출 물량은 줄어들었으나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수출을 통해 한국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2012년에서 지난해까지 6년간 연 평균 4.2% 감소했으나, 친환경차 수출은 같은 기간 연 평균 33.1% 증가했다.

친환경차 수출이 급증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 차종이 개발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 ‘쏘나타’에 HEV기술을 얹은 모델이 처음 수출되기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전기차와 수소전기

차, 2015년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까지 수출하는 등 지난해 기준 HEV·EV·FCEV·PHEV 등 모든 동력원을 기반으로 하는 14종의 수출 모델이 투입됐다.

한국 자동차업체의 친환경차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지목됐다.

기아자동차 ‘쏘울EV’는 출시 후 두 번이나 주행거리를 확대(150→380km)하며 성능을 개선시켰으며, 현대자동차 ‘아이오닉EV’는 2017~2018년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형차 중 연료 효율이 가장 우수한 자동차로 선정될 정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

이에 따라 글로벌 친환경차 수요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1.2% 증가하면서 2016년 245만대에서 지난해 408만대로 성장했으며, 이는 주요시장 중심적으로 친환경차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